

**조선시대 양반계층의 주택과 가구의 조형적 연계성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ve Relation of Yangban's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in the Chosun Dynasty

김진옥* / Kim, Jin-Ok

Abstract

Our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have developed their unique formative characteristic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well as under socio-cultural influence. In order to understand such characteristics of our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furniture, we need to clar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comparative study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tual relations among Yangban's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their furniture in the Chosun Dynasty on their formative characteristics, to identif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shapes, materials, colors, patterns and decorations found in the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their furniture,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buildings and their furniture.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ground for reinterpreting our culture and help to apply Korean cultural identity to today's interior and furniture design.

키워드 : 한국전통주거건축, 전통가구, 조형적 특성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residential architecture, Traditional furniture, Formative characteristic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요즈음 세계적인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 한류 열풍, 다양한 국제 행사 유치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이란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요인, 주변 문화와의 교류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오늘날의 서구화된 생활양식과도 조화를 이루면서 주체적인 한국문화를 이어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생활양식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축과 가구는 위에서 언급한 외부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건축과 가구의 상호관계에 의해 그 특징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연계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보다 확실하게 한국적 조형성

을 재인식하고, 이를 통해 서구화된 현대 디자인의 여러 분야에서 독창적인 한국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양반계층의 주거건축과 사랑방과 안방 등의 생활공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이것들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고, 그 조형적 특성간의 상호연계성을 비교분석한다. 시대적 범위를 조선시대로 한정하는 이유는, 조선시대의 문화는 비교적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자료도 다른 시대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류계층의 수준 높은 문화를 엿볼 수 있으면서도 궁궐이나 종교건축에 비해 자연스러운 생활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이유에서 건축의 범위를 상류계층인 양반의 주거건축으로 한정하였으며, 그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남녀유별 사상의 영향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랑채와 안채를 중심으로 한 생활공간에서 주로 사용한 가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주거건축은 다양한 직위와 지역의 양반계층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선시대의 상류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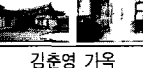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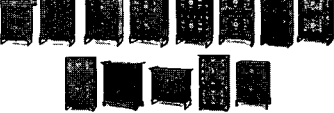





* 정회원, 경성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조교수

** 본 연구는 2004년도 재단법인 태평양학술문화재단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인 양반의 주택 중에서 건축 외관과 실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창덕궁의 연경당과 낙선재, 운현궁, 충효당, 남산골 한옥마을의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 해풍 부원군 윤택영댁 재실, 부마도위 박영효 가옥,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을 선정하였다. 또한, 가구의 사례로는 생활의 중심이었던 사랑채와 안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가구 중에서 장, 농, 탁자, 서안, 책장, 문갑, 반닫이의 대표적인 양식을 중심으로 총 35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참고문헌에서 발췌한 이미지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정리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2장에서 우선 주거공간과 가구의 조형적 요소를 면과 선에 의한 전체적인 형태, 재료나 마감에 의한 색채, 문양과 장식으로 나누어 비교적 공통되게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다음 단계의 조형요소에 대한 분석을 위해, '형태', '재료 및 색상', '문양 및 장식'에 있어 대표적으로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를 가로축과 세로축에 배치하고, 그에 대비되는 단어를 각각 축의 반대편에 배치하여 비교분석틀을 만든다.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건축 및 가구의 이미지 사진을 가로축과 세로축의 조형단어에 기준하여 가까운 쪽에 배치한다. 그리고 주거건축과 가구별로 각각 유사한 그룹으로 묶어, 각각의 그룹별 조형적 특징을 살펴본 후, 주거건축과 가구를 비교하여 조형적 연계성을 분석한다.

<표 1> 분석대상 건축과 가구

분류	대표 이미지		
건축			
			
			
가구			
			
			
			
			
			

2.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특성

양반계층의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조선시대 주거건축과 가구의 일반적인 조형적 특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2.1. 형태

(1) 간결성

5백여년 동안 조선시대의 문화를 지배해 온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도덕실천을 위한 윤리로서, 남녀, 상하의 위계를 중시하였고, 조형예술에 있어서 섬세하고 정교한 미의식의 발달을 막았다. 조선시대의 건축과 가구양식은 이러한 유교의 영향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면은 없으나 자연 그대로의 순박한 아름다움을 지닌 간결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조형미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자연물체를 사용한 간결한 선과 면에 의해 표현되었다.

특히, 실내공간은 규모에 있어서 좁다고 느껴질 정도로 과장되지 않았으며, 마감재도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흰색의 한지나 회벽으로 마감하여 간결하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가구의 경우도 나뭇결의 대비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목재를 주로 사용한 단순한 형태의 것이 많았으며, 소박한 실내공간과 어울려 부담스럽지 않은 간결함을 느끼게 한다.

(2) 선과 면의 대비

건축 외부공간은 기둥, 도리, 인방, 처마의 서까래와 창호의 살짜임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선적인 구성을 보이는데 비하여, 내부공간은 기둥, 도리, 보 등이 벽지나 천정지로 가려지고, 창호의 경우도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로 안쪽에 창호지를 붙여 전체적으로 벽과 일체감을 주는 면으로 구성되어 안정된 공간을 만들었다.¹⁾ 또한, 전통주택의 입면에서 볼 때, 원경에서 본 창호는 벽면에 대하여 면분할의 구성을 보여주며, 가까이에서 보면 그 안의 창호는 창살에 의한 선분할의 비례미를 보여준다.

한편, 양질의 목재를 풍부하게 수입하여 가구를 제작했던 중국이나, 산림자원이 풍부했던 일본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주로 사용했던 우리나라는 수종은 다양한 반면 넓은 판재로 사용할 양질의 목재가 부족하였다. 또한, 목리가 뚜렷한 목재는 한서의 기후 차이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심하여 쉽게 휘거나 터지므로, 넓은 판재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후와 재료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작은 크기의 판재와 골재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도 견고하고 하중도 줄이는 방법으로 가구를 제작하였다. 즉, 가구에서도 전면

1) 장인영, 한국 전통목가구의 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13 참조

을 쇠목이나 동자와 같은 골재로 분할하고 머름칸, 쥐벽칸, 복판 등의 면들로 재구성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이렇듯 우리의 전통주거건축과 가구에서는 선과 면의 대비가 고정적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상대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흰색의 단순한 벽면은 여백의미를 나타내준다.

(3) 대칭과 비대칭의 비례미

우리의 전통주거건축에 있어서 평면 배치를 보면 중국과는 달리 좌우비대칭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실내공간에서도 창호와 가구의 배치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면구성이 대부분이나, 창호의 창살문양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좌우대칭적인 면분할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건축은 전체적으로 비대칭적 배치를 이루면서, 세부적으로는 대칭적인 면분할의 비례미를 추구하였으며, 단조로운 실내공간에서는 가구의 높이와 크기를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변화있는 가구배치를 함으로써 지루함을 완화시켰다.

또한, 조선시대의 가구는 평좌생활에 맞추어 전면을 중시하여, 기능상 필요한 문의 구조나 서랍의 위치 등은 간결한 전체 형태에 어울리도록 선명한 면분할을 이루었다. 상부 서랍의 부착에 따른 면분할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 하단이나 중간부에 머름칸을 주거나, 이층장이나 삼층장의 상하부에 직사각형의 머름칸을 두고 좌우로 정사각형의 쥐벽칸을 두었다. 또한, 중심부에 넓은 문판을 두는 등 장방형과 방형의 연속에 의한 다양한 비례구성과 좌우대칭적 구도에 의한 정연한 면분할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몸체의 면구성이 큰 경우는 다리를 높여 시원하게 만들고, 몸체가 옆으로 긴 가구는 다리를 낮춰 안정감을 주는 등, 가구의 높이와 면분할의 규격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비례미와 좌식생활에 맞는 실용성을 복합적으로 추구하였다.

(4) 유연한 곡선미

노년기 지형의 한반도는 부드러운 곡선이 연속적으로 겹쳐진 듯한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곳에 주로 식생하는 소나무도 산의 형태와 유사한 자연적인 곡선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형적인 배경에 의해, 우리의 조형감각은 기하학적인 것 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자극적이지 않고 온화한 느낌의 형태적 특징을 형성하게 되었다.

건축물의 외관에 있어 지붕은 부드러운 곡선의 연속된 선적인 느낌이 강조되는데, 특히 처마는 완만한 곡선미를 나타내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가구에서는 온도에 의해 바닥의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심하여 목재가 수축, 팽창되어 가구가 변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다리 부분에 풍혈구조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가구의 구조적인 보강을 위한 기능성뿐만 아니라, 직선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몸체와 대비되는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장식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시각적으로도 안정감과 변화의미를 보여준다.

<표 2>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형태 특성

	주거건축	가구
간결성	· 자연과의 조화 중시 · 간결한 선과 면	· 단순한 장방형
선과 면의 대비	· 외부는 선적구성, 내부는 면적구성 · 원경은 면분할, 근경은 선분할	· 골재와 판재에 의한 면구성
대칭과 비대칭의 비례미	· 비대칭적 평면 배치 · 비대칭적인 창호와 벽면의 면분할	· 비대칭적 가구배치 · 좌우대칭적 면분할
유연한 곡선미	· 자연과 조화되는 유연한 곡선미	· 직선적인 몸체와 대비되는 곡선 형태의 풍혈구조

22. 재료·색채

(1) 자연의 소재감

한국인의 색채감각은 제도적으로 색채 사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에 의해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전통 건축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온화하고 소박한 색감의 소재색을 그대로 사용하여 채색을 하지 않은 자연과의 조화성, 통일성을 중시하였으며, 건축의 색채는 목재, 석재, 기와, 창호지 등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었다.²⁾

또한, 가구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였지만, 전체가 한 종류의 나무로 제작되지 않고, 목재의 특성에 맞게 골재, 판재, 화장재를 구분해서 사용했다. 궁중용 가구와 일부 상류계층에서 사용하는 고급가구에는 화각, 나전칠기, 주칠 또는 흑칠을 하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으나, 일반 가구에는 불투명한 칠을 입히지 않고, 투명재를 사용하여 자연의 나뭇결이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기름칠을 하여 사용할수록 윤이 나도록 하여 나무 특유의 부드러운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 명도대비

대부분 건축의 구조재는 목재를 그대로 마감함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무스름하게 변하여, 주로 주택에서 나타나는 색채는 증명도가 가장 많으며, 회벽마감의 천장이나 한지로 도배한 벽과 대비를 이루었다. 대청의 마룻바닥, 보, 서까래의 검은 색상과 흰색의 회벽은 구조나 명도에서 대비감을 주며, 창호의 창살도 명도대비를 보여준다.

실내의 벽은 일반적으로 회벽이나 벽지로 마감한 무채색의 고명도로서 저명도의 가구와 명도대비를 이룬다. 방안의 바닥은 노르스름한 색의 장판지로 마감하여 흰색의 벽으로 이루어진 실내공간을 온화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고, 벽의 창호는 안쪽으로 창호지를 발라 낮에는 거무스름한 창살이 비치도록 하고, 밤에는 흰색의 벽으로 단정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가구 자체에서는 건축의 명도대비만큼 확실한 명도차를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나뭇결이나 금구장식 등의 명도차에 의해 단조로움을 덜어주었다.

(3) 저채도, 유사색 조화

2)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1998, p.164

유교의 영향으로 금채사상이 일반적으로 지배하면서 계급이 낮은 계층에서는 혼례나 명절 때만 색동 등의 화려한 유채색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의 청색, 녹색과 동화될 수 있는 무채색이 주조색을 이루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 색채사용을 제한하였으므로 주택에서는 화려한 색채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기와, 석재, 회벽, 목재 등의 무채색과 저채도의 색상, 단순한 배색, 강하지 않은 대비, 유사색의 조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가구에서는 면분할에 의해 여러 종류의 나무를 사용하였으므로, 대부분 유사색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백동, 늦쇠, 구리, 무쇠 등의 가구의 금구장식을 이용하여 지루함을 덜어주었으며, 들기름을 그을려 검게 처리한 거머쇠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색채 조화를 이룬다.

<표 3>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재료·색채 특성

	주거건축	가구
자연의 소재감	· 목재, 석재, 흙 등의 다양한 자연 소재 · 소재색을 그대로 살린 자연과의 조화	· 골재, 판재, 화장재로 구분된 목재 · 투명마감에 의한 자연미
명도대비	· 회벽마감이나 한지의 고명도와 목재, 석재, 기와의 중·저명도 대비	· 실내의 고명도와 가구의 저명도 대비 · 가구지체는 명도대비가 심하지 않고, 금구장식으로 보완
저채도, 유사색 조화	· 기와, 석재, 회벽, 목재 등의 무채색과 저채도의 유사조화	· 목재 사용에 의한 유사색 조화 · 금구장식, 거머쇠를 이용한 색채 조화

2.3. 문양·장식

(1) 상징성

문양은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구성까지 다양하며, 인간의 길흉화복을 기원하는 도교적 문양, 생활규범과 관련된 유교적 문양, 악귀를 쫓고 수복을 염원하는 관념이 주술적으로 표현된 생활문양 등이 있다. 문양은 조형적인 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주술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자연문, 동물문, 식물문, 기하학문, 길상어문, 관념문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주거건축이나 가구에 사용되는 문양은 장식적인 성격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길상어문은 한자가 지니는 의미를 장식문양에 반영한 것으로 재앙을 면하고 평안과 복을 구하고자 하는 민간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박쥐는 다남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안방용 가구에 많이 사용되었다.

(2) 무기교성

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많지만, 다시 우리의 생활문화에 동화되면서 한국인의 멋과 정서, 해학과 우아함, 질박함이 묻어나는 고유한 조형성으로 재창조되어, 소박한 멋을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조형감각은 자극적

인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자연미를 추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기법에 의한 화려함보다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무기교의 기교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제도적으로 주택에 화려한 장식을 금하였으므로, 주거건축에서는 장식이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창호의 창살문양, 지붕의 막새기와, 마루의 난간, 담장의 전돌문양 등을 이용하여 건축의 단조로움을 덜어주기도 하였다.

남녀에 따라 주거공간이 구분되면서, 가구의 장식에도 남녀의 구분이 있었다. 안방 가구에는 자개, 화각, 금구장식을 이용한 비교적 화려한 문양표현을 하였으나, 사랑방 가구는 대체로 표면장식이나 금구장식이 적고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인위적인 장식은 가급적 배제하였다. 가구의 금구장식은 백동, 늦쇠, 구리, 무쇠 등이 사용되었으며 정교한 표현과 마감보다는 소박한 느낌으로 처리하였고, 문양을 좌우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들기름을 그을려 검게 처리한 거머쇠는 자연스럽고 소박한 목공장식의 특색을 잘 보여준다.

(3) 문양장식성

전통주택의 실내 마감에는 문양이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나, 창호나 난간에는 다양한 문양이 사용되어, 정적인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 창호의 창살에는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사랑채에는 넓은 간격의 범살이 주로 설치되었고, 아(亞)자살과 완(卍)자살은 여성이 사용하는 공간에 많이 이용되었다.

정자나 누마루의 경우 벽이 없으므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머름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였는데, 난간은 다양한 난간살로 장식을 하거나 구름 모양 등으로 장식한 풍혈 구조의 머름대를 놓기도 하여 주택의 입면을 장식하는 요소가 되었다. 닭의 가슴모양의 난간동자주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계자(鷄子)난간, 난간동자와 기둥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살을 짜 넣어 장식한 교란(交欄) 등이 있다.

가구에는 자연물을 주제로 한 문양의 자개, 화각, 금구장식을 주로 사용하여, 장방형의 면분할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주었다. 또한 반달이는 목리가 좋은 넓고 두꺼운 판에 무쇠로 된 큼직한 장식들이 어울려 단순하고 힘있는 조형미를 나타낸다.

(4) 기능성

양반계층의 주택에서는 이중이나 삼중의 겹창을 설치하였는데, 바깥쪽에는 여단으로 차폐성을 높이고, 안쪽으로는 채광성을 높인 미단을 설치하였다. 이때, 덧문인 여단은 촌촌하고 안정감을 주는 띠살문양으로 견고함을 보여주며, 안쪽의 미세기문에는 다양한 무늬의 살창으로 의장성을 높였다.³⁾ 차광(遮光)이나 겨울철 보온을 목적으로 두꺼운 한지를 여러 겹 바른

3)한옥의 재발견, 주택문화사, 1995, p.55

맹장지에는 방안이 어두운 것을 보완하기 위해 문의 중간에 직사각형이나 팔각형 등의 불발기창을 만들었는데, 교살, 정자살, 완자살 등의 화려한 창살문양을 구성한다.

가구에 있어서 금구장식은 조선조 가구의 단조로운 수직 수평의 직선구조에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장식적인 액센트가 되는 미적 기능과 함께 목재의 수축팽창을 막으면서 힘의 구심을 잡아주는 구조적 기능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다리부분이나 난간의 머름대에서 보이는 풍혈구조도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능성을 겸비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가구에 문양이 많이 사용되지 않거나 금구장식의 경우도 기능위주의 단순한 모양이었으나, 말기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사용되어 복잡하고 화려해지면서 차츰 장식의 성격이 강해졌다.

<표 4>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문양·장식 특성

	주거건축	가구
상징성	·민간의 염원이 반영된 상징성이 강함	·민간의 염원이 반영된 상징성이 강함
무기교성	·유교의 영향에 의해 화려한 장식 금함 ·창호의 창살, 박새기와, 난간, 전돌 등에 문양을 이용하여 단조로움을 보완	·문양의 종류에 있어 남녀의 구분 ·사랑방 가구는 장식 절제, 안방 가구는 비교적 화려한 문양 사용 ·거머쇠에 의한 소박한 목공장식
문양장식성	·실내마감에는 문양이 거의 이용되지 않음 ·창호에는 기하학적 문양, 난간 등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장식이 주로 사용됨	·자연물을 주제로 한 문양과 기하학 문양이 사용됨
기능성	·창호의 창살 등에 기능성을 살린 장식 적용	·구조적인 보강의 기능을 하는 금구장식을 사용

3.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특성 비교분석

전통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형태’, ‘색채·재료’, ‘문양·장식’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두 개의 단어와 그에 대비적 개념의 단어를 각각 가로축과 세로축의 양쪽에 배치하여 분석틀을 만들었다.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건축과 가구의 이미지사진을 가로축과 세로축의 조형단어에 기준하여 가까운 쪽에 배치하고, 각각 유사한 범위를 그룹핑하여, 그룹별 특징을 알아본 후,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연계성을 비교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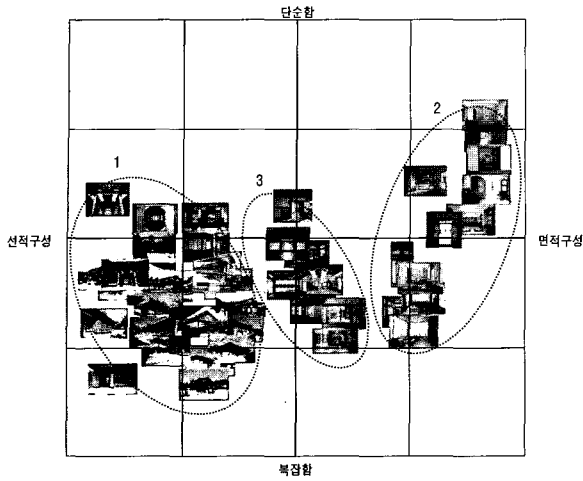
3.1. 주거건축과 가구의 형태 비교분석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간결성, 선과 면의 대비, 대칭과 비대칭의 비례미, 유연한 곡선미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 중에서 비례미와 곡선미는 간결하고 복잡한 형태미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형태에 대한 분석 키워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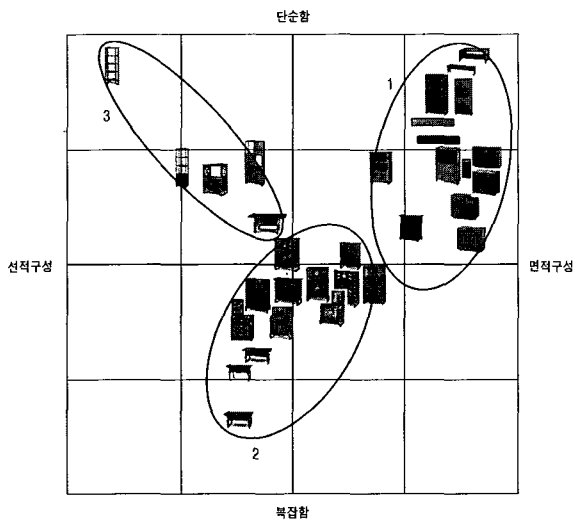
서는 ‘단순함-복잡함’, ‘선적인 구성-면적인 구성’을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외곽의 형태에 있어서 직선적이고 대칭적이며 간결한 것은 단순함으로, 곡선 또는 짧은 직선의 조합과 비대칭적인 것은 복잡함으로 나누어 보았고, 재료의 색채 및 명도 대비, 면과 면의 경계 등이 면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과 선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것에 따라 선적인 구성과 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한편 전체적인 외곽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화려하고 복잡한 문양을 사용한 경우는 문양과 장식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이미지를 배치해 본 결과, 형태적 특성은 건축, 가구 모두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건축에서의 형태적 특성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은 선적인 구성과 선에 의한 작은 면분할, 비대칭적 면구성과 자연스러운 곡선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주로 건축 외부공간으로서 기둥, 보, 서까래, 창호 등에서 소재의 명도대비에 의한 선적 구성이 보이고, 건물의 배치나 창호의 배치에서 비대칭적 변화감이 보이며, 지붕의 유연한 곡선과 서까래, 기둥 등에서 나무의 구부러진 형태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온화한 느낌을 준다.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나타나며 바닥, 벽, 천장의 면을 단순하게 한 가지 소재로 마감하고, 창호의 경우도 안쪽으로 창호지를 발라 같은 면으로 느껴지도록 하였다. 또한, 마감재로 사용한 한지나 장판지의 겹친 부분이 넓은 격자무늬를 보임으로써 직선적이고 단순한 면의 느낌을 준다. 세 번째 그룹은 외부와 실내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대청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밖으로 창살이 보이는 창호와 서까래에서는 선적 구성 두드러져 보이고, 창호는 멀리서 보았을 때 회벽으로 처리한 벽면과 면적 대비를 이룬다. 또한, 바닥면은 크게 하나의 면을 이루면서, 널의 조합에 따라 작은 면으로 나뉜 면구성의 성격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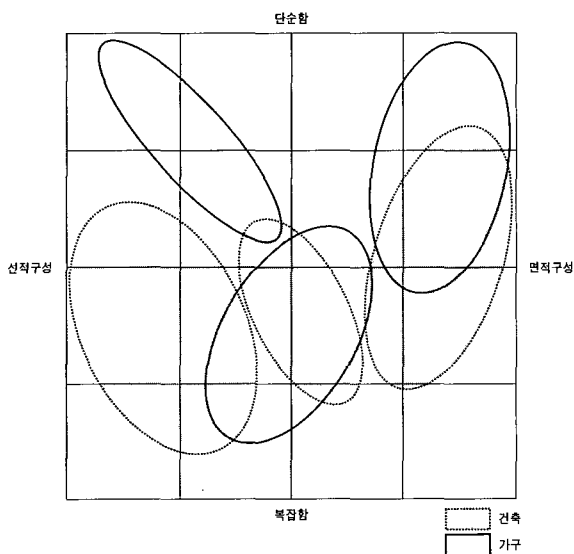
가구의 전체적인 형태는 장방형의 단순한 것이 대부분이며, 머름간, 쥐벽간, 복판 등의 구조에 의한 면분할을 통해 면적 구성을 보여준다. 일부 가구에서는 부분적으로 가구의 다리나 상판에 곡선적인 형태를 사용하거나, 선적인 느낌이 강한 골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 볼 수 있는 형태적 특징은 주로 책장, 문갑, 반닫이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체의 형태가 직선적이고 단순한 장방형의 상자 형태이다. 두 번째 그룹은 몸체는 단순한 장방형이면서 다리에 부분적으로 곡선을 사용하거나 상판의 모서리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직선적인 몸체의 딱딱함을 완화시켜주었으며 주로 장과 농, 서안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전체적인 형태는 직선적인 장방형이지만 가느다란 골재를 이용하여 선적인 느낌을 준 것으로, 좁은 방 안에서 키가 큰 가구가 주는 부담감을 시각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주로 키가 높은 사방탁자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1> 주거건축의 형태 분석



<그림 2> 가구의 형태 분석



<그림 3> 주거건축과 가구의 형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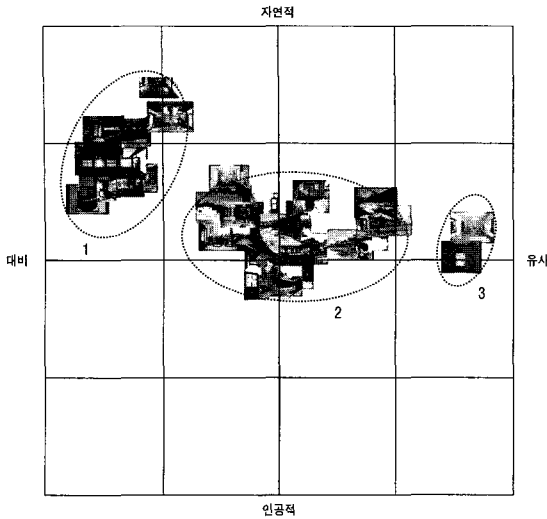
이상의 형태적 특징으로 볼 때, 유교의 영향으로 건축, 실내 공간, 가구 모두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추구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간결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단순함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에서는 면분할의 비례와 유연한 곡선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가구에서는 공재와 판재에 의한 면분할과 풍혈 구조 등의 곡선을 사용하였다. 한편, 건축의 외관에서는 선적인 구성과 완만한 곡선의 조화, 외부적 내부공간인 대청에서는 자연스러운 선과 면분할의 공존, 실내에서는 바닥, 벽, 천장의 단순한 면과 대비되는 가구의 아기자기한 면분할로 공간에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구 자체는 직선적인 장방형의 몸체가 주를 이루면서 두드러지지 않는 면분할로 변화를 주었고, 부분적으로 유연한 곡선이나 선적인 골재를 적용하여 변화감을 주었다.

3.2. 주거건축과 가구의 색채·재료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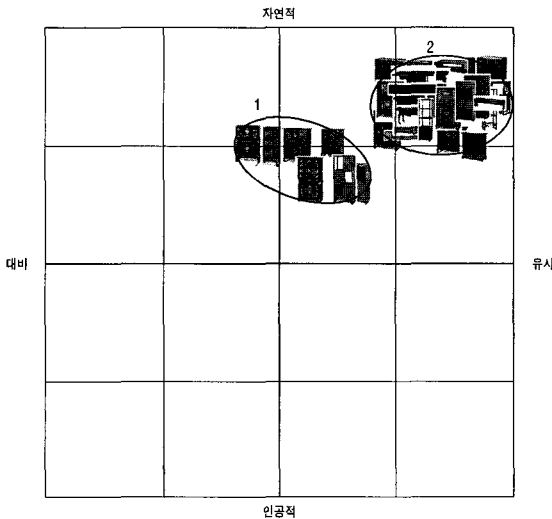
색채 및 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크게 자연미와 조화미를 대표적인 조형 특성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재료 및 색채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는 ‘자연적-인공적’, ‘대비-유사’를 선정하였다. 주재료나 부재료에 있어서 자연적인 소재를 주로 사용했는지 여부, 마감 방법에 있어서 자연적인 소재감을 살리도록 했는지에 따라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분류하였고, 대비와 유사에서는 명도, 채도, 색상에 있어서 대비를 이루는 것과 유사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누어 보았다.

건축에 있어서는 구조재의 거무스름한 저명도와 회벽이나 한지의 고명도가 대비를 이루는 그룹과 저채도의 색상들이 대비와 조화를 이루는 그룹, 한지나 장판지 등의 밝은 소재로 마감하여 거의 유사한 조화를 이루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주로 창호의 문살이나 대청의 서까래, 회벽과 창호의 대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그룹은 원경에서 본 건축의 외관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퇴색된 목재, 기와, 석재, 전돌 등에서 저채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 번째 그룹의 경우는 가구를 배치하기 전의 실내 공간에서 볼 수 있는데, 대청에서 보이는 천장과 벽면의 대비와는 달리, 방안은 천장과 벽면, 창호를 모두 한지로 마감하여 단순하게 통일하였으며, 바닥의 장판지 색상을 유사한 명도의 황색 계열로 마감하여 단조로움을 완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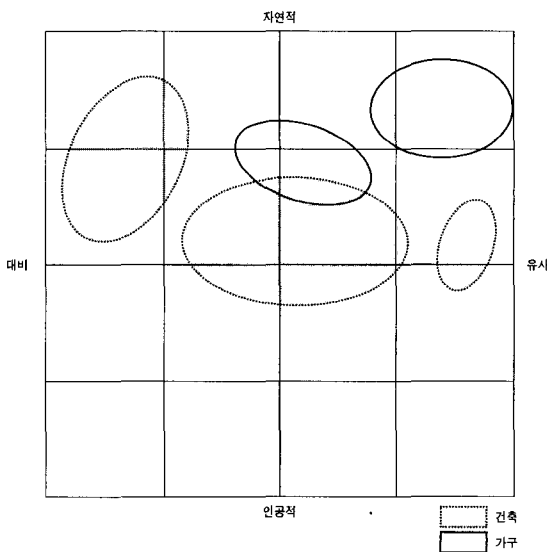
가구의 경우는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금구장식이나 나전 등을 이용하여 장식을 하거나 명도대비가 강한 목재 또는 나뭇결을 이용한 그룹과 주로 목재만을 이용하여 유사한 색상으로 이



<그림 4> 주거건축의 색채·재료 분석



<그림 5> 가구의 색채·재료 분석



<그림 6> 주거건축과 가구의 색채·재료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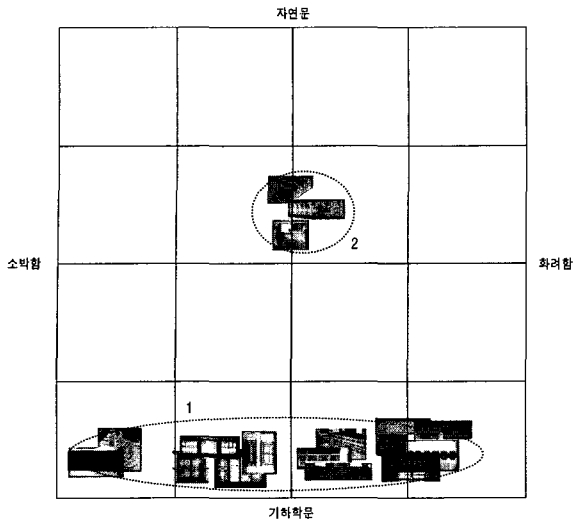
루어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두 그룹 모두 주로 목재를 이용하여 제작했으므로, 건축에서만큼 강한 명도나 색상대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룹에서는 목재의 종류를 다르게 조합하거나 먹감나무와 같이 나뭇결의 강한 대비를 이용하여 유사한 색상에서 명도의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었다. 금구장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식의 색상과 목재의 색상이 강하게 대비를 이루기보다는 비슷한 저명도의 거명쇠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황색계열의 금속을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상의 색채·재료의 조형적 특징을 비교해 보면, 건축과 가구 모두 주로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면서 인위적인 색채의 마감을 하지 않으므로써 소재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고 있었다. 한편 건축의 경우는 외관에서 볼 때는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저채도, 유사색의 조화와 변화 있는 명도대비로 활력 있는 연출을 하면서도 실내공간은 고명도의 단순한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여 온화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가구에서는 나무가 주재료로 사용되면서 나뭇결을 살려 유사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금구장식이나 거명쇠 등의 장식을 이용하거나 나뭇결의 대비를 이용하여 색채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건축에서 보이는 만큼의 강한 대비보다는 유사한 조화를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명도도 단순하게 마감된 실내공간과 저명도의 가구가 면적으로 명도대비와 색채 대비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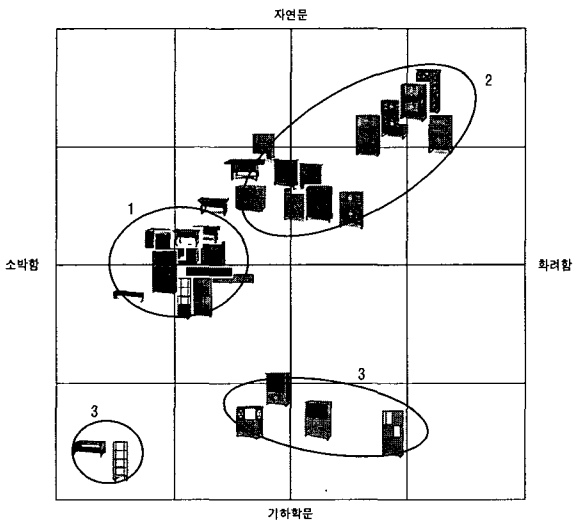
3.3. 주거건축과 가구의 문양·장식 비교분석

문양 및 장식의 일반적인 고찰에서 살펴본 조형적 특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보면 상징적·기능적인 것과 무기교적·장식적인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상징성과 기능성의 어느 한쪽보다는 양쪽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는 소박하고 화려함에 포함시켜 분석하기로 하고, 이를 대신하여 자연물을 도안화한 것과 기하학적 문양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이데 따라 문양 및 장식을 분석하기 위한 키워드로는 '자연문-기하학문', '소박함-화려함'을 선정하였다. 문양의 종류에 따라 식물문, 동물문, 자연문 등은 자연물로 분류하고, 기하학문, 길상어문 등은 기하학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소박함과 화려함에 있어서는 문양 자체의 소박함과 화려함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장식의 소재나 배치에 따른 소박함과 화려함을 함께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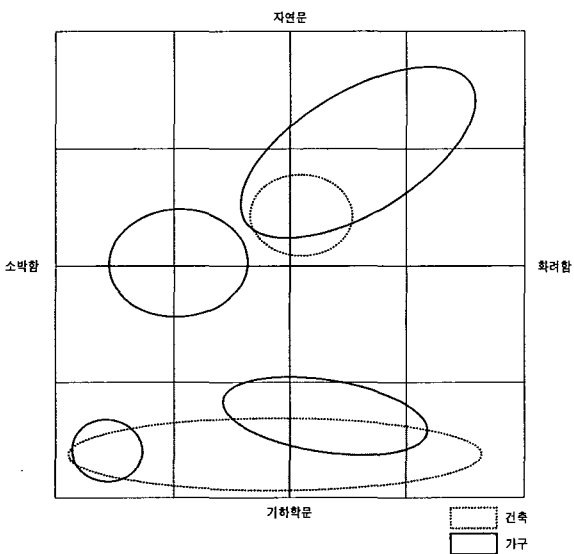
우선 건축에서 보이는 문양 및 장식의 경우, 첫 번째 그룹에서는 대부분이 기하학적인 문양이었으며, 주로 창살에 많이 사용되었고, 담장 등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기하학적 문양은 구조가 넓직한 것과 세밀한 것, 수직, 수평 위주의 것과 사선이 함께 사용된 것 등으로 소박한 것에서부터 화려한 것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에서는 일부 자



<그림 7> 주거건축의 문양·장식 분석



<그림 8> 가구의 문양·장식 분석



<그림 9> 주거건축과 가구의 문양·장식 비교

연물을 단순화한 문양이 난간, 보아지, 기와의 막새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정교하고 세밀한 기교보다는 소박하게 단순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가구의 경우는 건축보다 다양한 문양을 사용했는데, 안방 가구와 사랑방 가구의 문양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주로 의걸이장이나 문갑, 반닫이 등에 소박한 문양의 금구장식이 기능에 맞도록 배치되었고, 두 번째 그룹은 안방의 장이나 농에서 주로 볼 수 있었는데, 식물문, 자연문 등을 이용한 화각, 나전, 투각한 금구장식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가구가 많았다. 세 번째 그룹은 주로 사랑방 가구로서 장식이 전혀 없거나 단순한 기하학적 문양이 사용되었고, 금구장식도 기능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사용이 되어 장식적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양의 경우 건축에서는 창호를 중심으로 기하학문이 주로 사용되면서 일부 난간 등에 자연문을 단순화하여 적용한 경우가 있었으며, 가구에서는 자연문과 기하학문이 골고루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구의 장식은 주로 여성의 공간이나 안방의 가구에 화려한 장식을 한 사례가 많았으나, 남성의 공간이나 사랑방가구는 기능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식이 없거나 단순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축과 가구 모두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능성을 겸비하여 기교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는 건축 외관에서 창호가 통풍, 차폐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 요소로서의 기능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으며, 또한, 가구의 금구장식은 장식을 위한 목적 외에도 구조적인 보강을 위한 기능성을 갖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으로 전통 주거건축과 가구의 조형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 주거건축과 가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형태, 색상 및 재료, 문양 및 장식으로 나누어 조형적 특성을 정리한 후, 조형요소별로 건축과 가구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다.

형태적 요소에서는 건축, 실내공간, 가구 모두 전체적으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소박하고 검소한 것을 추구하는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간결한 형태를 나타내며, 이러한 단순함에서 오는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면분할의 비례와 유연한 곡선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건축의 외관에서는 선의 대비와 면적 구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실내공간에서는 주로 면적 구성의 특성을 보여주고, 단순한 실내공간에 면분할의 비례미를 보여주는 가구를 배치함으로써 공간에 변화감을 주었다.

재료와 색채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자연의 소재감을 충분히 살리고, 명도대비로 활력 있는 연출을 하거나 저채도, 유사색의

조화로 온화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건축에서는 다양한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구성을 한데 반하여, 가구는 나무가 주재료로 사용되면서 나뭇결을 살리거나 금구장식을 이용하여 색채의 변화를 주었다. 건축을 원경에서 볼 때는 저채도의 유사색 조화미를 보여주면서, 근경에서는 강한 명도대비를 이룸으로써 변화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실내에서는 공간의 고명도와 가구의 저명도가 면적 대비를 이루었다.

문양과 장식은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주술적인 염원이 내포된 상징물로서 기능성을 겸비하여 기교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문양의 종류로는 크게 자연문과 기하학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건축에서는 주로 기하학 문양이 사용되었고, 가구에서는 소박한 자연물 문양과 기하학문양이 골고루 사용되었다. 이는 건축 외관에서 창호가 통풍, 차폐 등의 기능뿐만 아니라 장식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내에서는 벽, 바닥, 천장의 단조로움을 가구의 장식적으로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의 금구장식은 장식을 위한 목적 외에도 구조적인 보강을 위한 기능성을 갖추면서 소박한 것과 화려한 것이 골고루 나타났다.

위에서 정리해 본 바와 같이 주거 건축과 가구는 오랜 기간 동안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기능적, 조형적 특성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바탕으로 조형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한다면 전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고유의 조형감각, 미의식을 제대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 시대에 조화를 이루면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활발히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립민속박물관, 목가구, 대원사, 2004
2.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3. 배만실, 한국 목가구의 전통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4. 신영훈, 한옥의 조형의식, 대원사, 2001
5. 신영훈, 한옥의 향기, 대원사, 2000
6. 임영주, 한국의 전통 문양, 대원사, 2004
7.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대원사, 2001
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9. 추원교, 우리의 공예문화, 예경, 2003
10. 한옥공간연구회, 한옥의 공간문화, 교문사, 2004
11. 한옥의 재발견, 주택문화사, 1995
12. 김진옥, 한일의 전통 주거공간과 가구의 특성 비교, 경성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4
13. 이영진, 한국 전통주택에 사용된 재료의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 장인영, 한국 전통 목가구의 미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접수 : 2006. 8. 29>